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8호 【루계 제24691호】 주체103(2014)년 10월 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인민의 인사를 받으시라, 선군조선의 장한 체육인들이여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 경축분위기로 들썩이고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체육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도 평양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온 나라의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선군조선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내고있다.

이번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여러 경기들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력기경기에서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여 세계력기계를 뒤흔들었으며 체조와 레스링, 사격, 권투, 탁구경기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맞다드는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함으로써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거둔 성과는 뜻깊은 10월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며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친 영웅적장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번에 거둔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체육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체육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밝히시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새 세기의 요구,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체육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으로부터 체육인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시고 국제무대에서 우승한 체육인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심혈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청춘거리 체육촌을 비롯한 체육기지들이 훌륭히 개건되고 온 나라에 대중체육활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나라의 체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주체의 내 조국을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체육을 국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나큰 힘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오늘과 같은 경이적인 우승의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것이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번에 거둔 자랑찬 성과는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의 힘있는 분출이다.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자기 령도자를 그리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있다. 이번에 우리 체육인들을 승리의 단상, 영광의 단상으로 이끌어준 정신적자양분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고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철석의 일념이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엔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였으며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경기를 지켜보신다는 남다른 긍지가 꽉 차있었다. 세상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우리 체육인들처럼 자나깨나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과 신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경기무대에 당당히 나서는 체육인들은 없다.

첫 금메달을 안아온 엄윤철선수가 세계에 터친 진심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왔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었다는것이였고 두번째 금메달을 안아온 김은국선수의 심장의 토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는것이였다. 리정화, 홍은정, 김은주, 김은향, 정학진, 김지성, 장은희, 김혁봉, 김정선수들과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게 된 비결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드림없는 맹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령도자의 심중에는 언제나 체육인들이 자리잡고있고 체육인들의 심장속에는 령도자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끝까지 같이할 일편단심이 꽉 차있는 혼연일체,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체육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오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번에 거둔 성과는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온 나라에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원동력이다.

우리 인민은 경기대회의 전기간 체육선수들과 함께 달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그 누구나, 그 어디에서나 선군조선의 승전소식을 기다리며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기장상공에 람홍색공화국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마다 서로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더욱 빛내일 맹세로 심장을 끓인 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체육인들의 자랑찬 경기성과들은 온 나라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차넘치게 하였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열정이 나래치게 하였다. 화력발전부문의 전력생산자들이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고 화력발전량을 2배이상 장성시켰으며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중요대상건설장들을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나 비약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선군조선의 승전열풍을 안아오고 전체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고조시킨것으로 하여 우리 체육인들의 경기성과가 그토록 귀중하고 값높은것이다.

우리의 장한 체육인들처럼 힘차게 싸워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바로 이것이 지금 온 나라에 차넘치는 혁명적열정이며 전투적기백이다.

우리는 이번에 이룩한 체육성과를 공고히 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전략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특출한 조직적수완과 령도예술로 천만군민을 이끄시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백두산대국의 앞날은 창창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일편단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체육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체육발전은 나라의 존엄과 권위를 비상히 높이고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온 나라에 건전하고 활기에 넘친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체육을 통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슬기와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야 한다.

체육인들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금메달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체육부문에서는 승산있는 종목에 힘을 넣어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은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더욱 완성하며 누구나 세계적인 특기선수, 강자가 될만만한 야심을 지니고 훈련장마다에서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모든 종목들에서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누구나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튼튼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위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들에서 체육수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과외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체육시설들을 애호관리하고 널리 리용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국가기관들에서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체육활동을 벌릴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후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비약적인 성과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 체육부문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쳐나가는데서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린 체육인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이 자랑하는 참된 아들딸이고 애국자들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승리를 떨친 선군조선의 미더운 체육인들의 자랑찬 성과에 발을 맞추어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기적과 민족사적대경사들을 련이어 안아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얼마든지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최첨단돌파전,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친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의 공격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적극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신적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대의 마력을 내여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 때 당과 조국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떳떳할수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하다, 체육인들이여.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시라.

모두다 체육강국으로 솟구치는 선군조선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우리의 건재로 마감공사를 손색없이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는 벅찬 시기에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국내산 건재의 리용비중을 높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1단계 개건보수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이곳 현장에서 강질유리와 겹유리, 타일과 돌제품을 비롯한 국내산 건재의 도입종류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범사와 표범사를 비롯한 맹수사들의 관람창과 천정창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겹유리와 강질유리로 손색없이 마감되고 기타 동물사들의 건축공사에도 타일과 건구류, 도색류를 비롯한 국내산 건재들이 적지 않게 쓰이고있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국내산 건재가 적극 도입되고있는 성과는 건설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단위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투쟁속에 마련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를 국산화하는것은 건설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긍지를 안겨주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됩니다.》

중앙동물원의 1단계 개건보수공사는 매 동물사들의 특성이 각이하여 설계와 시공이 복잡하고 그만큼 품종이 다양한 건재의 소요량이 많은 어려운 건설대상이다.

현장지휘부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공사량이 아름찬 조건에서 국내산 건재의 리용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감을 높이고 공사기일을 훨씬 줄이는 기본고리로 정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국내산 건재를 리용하는 사업도 두뇌전, 기술전이라는 관점을 세우고 공사에 참가한 설계원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해당 단위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긴밀히 하도록 송풍기적역할을 능숙히 수행하였다.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진 나날에 평양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설계원들이 분발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려가는 설계마다에 부강조국번영의 래일이 비낀다는 자각을 안고 맹수사들의 마감시공에 필요한 관람창의 두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국내산 건재의 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 설계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공사현장과 건재생산을 맡은 련관단위들에서 기술협의회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설계가와 시공일군, 사양공과 해당 부문 연구사들의 창조적협조가 강화된 속에 국내산 건재를 광범히 리용할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 새로운 겹유리생산기지가 꾸려지고 천리마타일공장과 평양목재공장, 룡강지구의 돌제품생산단위들과 연탄스레트광산을 비롯한 각지 건재생산단위들에서 마감건재의 확보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결과 여러가지 유리건재와 건구류, 타일과 색감, 돌건재소요량의 전량 또는 대부분을 국내산 건재로 리용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으며 기와를 비롯한 적지 않은 국내산 건재도 공사에 받아들이게 되였다.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국내산 건재를 리용한 마감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맡은 동물사들을 안팎으로 손색없이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김동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개건보수공사에서 혁신의 기수가 될 기세드높이 마사의 실내바닥과 규모가 큰 인공폭포 및 휴식터를 형성하는 과정에 많은 량의 국내산 마감자재와 돌건재를 자체로 확보하여 현장의 모습을 손색없이 변모시키는 자랑을 떨치였다.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코끼리사내부의 천정마감과 중앙동물원의 구획별안내표식판을 비롯한 건설장의 요소요소에 애국의 소중한 마음을 기울여 건설장적으로 국내산 건재의 리용비중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도국아래 룡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국내산 건재인 타일과 건구류, 기와로 사슴놀이장의 지붕과 파충관내부의 여러 개소를 손색없이 마감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한편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옥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장산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천리마타일공장과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로동계급이 생산하여 보내준 타일과 건구류를 비롯한 국내산 건재로 맡은 동물사들의 내외부벽체와 바닥, 외랑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감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과 련관단위 기술자, 로동자들은 겹유리를 비롯한 다량의 국내산 건재를 공사과정에 보란듯이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계, 우리의 건재로 제기되는 건설대상과제를 능히 수행할수 있는 새로운 비약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는 지금 국내산 건재의 리용비중을 부쩍 높인 결과같은 로력과 자재로 공사초기에 계획된 량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건설이 추진되는 자랑찬 결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정보당 감자생산 1.5배, 매일 1000여t씩 수확

부전군과 장진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온 부전군과 장진군의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정보당 감자생산을 1.5배로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봄내여름내 애써 가꾼 감자를 제때에 거두어들일 한마음으로 떨쳐나 매일 1000여t씩 수확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함남땅의 감자산지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정보당 감자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올해 감자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밑에 지력을 높이고 감자밭비배관리를 깐지게 하도록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농장들에서는 감자종자의 랭상처리를 기술적으로 잘하는것과 함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다량 및 미량원소비료들과 성장촉진제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결과 지난해보다 정보당 감자생산을 1.5배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게 된 기쁨안고 분발해나선 부전군과 장진군의 농장원들은 요즘 매일 많은 량의 감자를 수확하고있다.

나라의 이름난 감자산지인 부전고원에서 감자캐기실적이 90%계선을 넘어섰다.

군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를 잘 짓는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을 빛내이고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이라고 하면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은하, 읍, 안기협동농장들에서는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농장원들을 이끌어 감자캐기와 운반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이곳 농장원들도 애써 가꾼 감자를 제때에 거두어들여야 허실을 막을수 있다고 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이 농장들에서는 20여일 남짓한 기간에 감자캐기를 말끔히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뒤를 바싹 따라선 룡구, 여운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떨쳐나 감자를 캐는족족 실어들여 잘 보관하고있다.

장진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열의안고 감자캐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 예견되는 날씨의 특징들을 제때에 알려주면서 그에 맞게 감자캐기를 빨리 다그치도록 하였다. 군일군들은 감자포전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품종특성과 생육상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농장들에서 포전별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늪수협동농장이 군적으로 감자캐기에서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황초, 갈전, 속사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도 애써 농사지은 감자를 허실없이 캐서 거두어들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곳 농장원들은 감자를 캔 밭을 그날로 다시 깐깐히 살펴보면서 한알도 허실되지 않게 애쓰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의 근로자들도 감자농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감자수확을 적극 돕고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감자캐기실적은 련일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일터마다 창조와 혁신으로 끓는다

강원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기들앞에 맡겨진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하여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원산제염소의 소금생산자들은 올해의 일기조건에 맞게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햇소금을 생산한 소금생산자들은 증발지들과 결정지들에서의 물조절과 면고루기 등 소금발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 년간 소금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소금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문천탄광과 삼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목표를 세우고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문천탄광에서는 석탄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채탄장을 늘이는데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생산전망이 좋은 새 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삼천탄광의 일군들도 갱들에 내려가 석탄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정과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원산유리병공장을 비롯한 도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갖가지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원산선박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배수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들을 미리 마련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매달 맡겨진 배수리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밖에도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림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맞받아뚫고나가며 대고조전투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세멘트와 통나무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페막식에 참가할

황병서동지와 일행 출발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페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가 동행하였다.

정 론

창공에 우리 국기 더 높이 휘날리자

장하고 미더운 우리 체육선수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렸다.

국기는 인민의 존엄이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넋이고 기상이다.

우리 국기가 세상에 태여난 뜻깊은 9월,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이 아로새겨진 경사로운 10월에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친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체육선수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 축하의 인사가 내 나라의 하늘가에 가득 차넘친다.

축하를 받으시라,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여.

그대들이 이룩한 성과는 조국의 높은 존엄을 걸고 싸워이긴 위대한 승리이다. 그대들이 경기마다에서 보여준 완강한 투지는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그대로이다. 그대들이 떨친 기개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기적과 비약의 더 큰 나래를 달아주는 힘찬 박차이다.

낮에도 밤에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장한 체육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에 람홍색공화국기는 그들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그들처럼 조국을 만방에 떨칠 신념과 맹세백배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은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육경기는 나라들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 20일동안 온 나라에 하나의 흥분, 하나의 열기, 하나의 지향이 힘차게 고동쳤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오늘은 또 어떤 쾌승이 이룩될것인가.

아침에 잠을 깨여도 누구나 그것을 생각했고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르면서도 누구나 그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매일매일이 흥분과 환희의 련속이였다.

지난 9월 15일 우리 남자축구팀이 조별련맹전에서 중국팀을 3:0으로 압승한 소식으로 막을 올린 경기대회의 쾌승보도는 매일과 같이 이 땅의 초소와 일터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끓게 하였다.

20일에는 인민체육인인 엄윤철선수가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첫 금메달을 따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우리의 가슴 세찬 격정으로 높뛰였고 21일에는 김은국선수가, 22일에는 리정화선수가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또다시 온 나라를 환희의 물결로 설레이게 하였다. 24일에는 홍은정선수가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25일에는 김은주, 김은향선수들이 녀자력기 75kg급경기와 체조 평균대운동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 그야말로 명절분위기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남조선의 통신, 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이에 대해 보도하였다.

프랑스신문들인 《러 스포르》와 《몽드》, 일본의 교도통신, 남조선의 《련합뉴스》, 《MBC》와 인터네트신문들인 《통일뉴스》와 《노컷뉴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 통신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이어 성과를 올리고있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 전하면서 체육강국으로 솟구치는 조선의 기상에 아낌없는 격찬을 보내였다.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에서 우승한 정학진선수,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1등을 한 김지성선수, 녀자권투 75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장은희선수, 탁구 혼성복식경기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 김혁봉, 김정선수들…

맞다드는 적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1등의 시상대에 올라 인천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는 우리 체육인들의 승전소식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계속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경기소식은 참으로 심장이 터질것만 같은 환희를 안겨준 쾌승중의 쾌승이였다.

《우리 녀자축구팀 남조선팀을 타승, 결승경기에 진출》, 지난 9월 30일부 신문들에 일제히 실린 이 소식은 얼마나 통쾌하였던가.

10월 1일 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일본팀과의 녀자축구 결승경기가 시작될 인천의 하늘가로 달리였다.

한초 또 한초…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온 나라 인민이 가슴을 조이며 경기결과를 기다렸다.

드디여 이 땅을 격동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며 전해진 가슴후련한 쾌거—우리 나라 녀자축구팀 일본팀을 3:1로 타승하고 영예의 제1위 쟁취!

이 하늘아래 사는 사람모두가 기뻐하고 흥분과 격정으로 잠들지 못하였다. 영예의 승리자가 자기자신들이기라도 한듯 온 나라 인민이 기쁨의 눈물 흘리며 장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보고 또 보던 그 밤의 격정이 지금도 세차게 밀물쳐온다.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열정에 넘쳐 경기장을 누비던 미더운 우리 녀자축구선수들, 그들이 높은 기술과 련속적인 공격으로 상대방의 문전을 위협하며 통쾌한 득점장면을 펼쳐보일 때마다 집집의 창가에서, 일터마다에서 일시에 터져오르던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별빛흐르는 조국의 밤하늘가로 랑랑히 울리여가던 그 밤의 환희와 격정.

—장하다, 조국의 미더운 딸들아!

—멋있다, 조국의 영예 한껏 떨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여!

우리의 심장과 심장이 터쳐올린 이 격찬의 목소리들을 모두 합치면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축하의 노래, 감사의 인사가 될것이다.

우승후보팀이라 자처하던 일본, 남조선팀을 모두 눌러딛고 우리 선수들이 떠받들어올린 람홍색공화국기가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서서히 게양될 때 그 기발 우러러 삼가 거수경례를 드리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두볼로 줄줄이 흐르던 격정의 눈물, 기쁨의 눈물 얼마나 뜨거웠던가.

진정 그것은 심장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온넋을 바쳐 조국을 빛내인 참된 애국자들만이 맛볼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고 영광이였다.

어찌 그들만이랴.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추켜올리기에서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세운 엄윤철선수, 62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기록,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추켜올리기도 세번 다 본때있게 성공시켜 2년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웠던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한 김은국선수 그리고 녀자력기 75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164kg을 들어올려 종전의 세계기록을 보기 좋게 돌파한 김은주선수의 승리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조국땅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온 우주를 들어올릴 무서운 힘을 과시한 그들은 우리의 조국을 력기강국으로 세계의 머리우에 받들어올린 영예로운 승리자들이다.

이런 녀자축구강자들, 력기강자들을 가리켜 장하고장한 영웅적체육인들이라고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먼 옛날 사람들이 피로를 회복하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 유희, 오락을 많이 하면서 생겨난 《스포츠》라는 말이 점차 본래의 뜻을 훨씬 벗어나 승패를 판가리하는 경기적인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한것은 19세기말~20세기초였다.

오늘 체육경기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판가리하는 포성없는 전쟁으로, 치렬한 대결마당으로 되고있다. 포성이 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나날에 이역의 하늘가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떠우는것은 오직 체육인들뿐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금메달, 이는 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꿈이고 리상이다.

소원만으로는 쟁취할수 없는것이 금메달이고 리상만으로는 지닐수 없는것이 우승자의 영예이기도 하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도 그 꿈과 리상의 성취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경기장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경기대회가 시작되여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도 경기대회장에 8번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수십번 게양된 사실, 출전종목수에 비한 나라별메달획득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그런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가 알고싶어하는것이 있었다.

—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처럼 열정에 넘쳐 경기를 진행하는가?

이런 한결같은 의문을 안고 기자쎈터에서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여 대파문을 일으킨 우리 나라의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세계에 방송보도하기 위한 인터뷰를 마련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각국의 기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엄윤철선수가 발언하였다.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당신들은 닭알로 바위를 깬다고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제노라 하는 각국의 기자들이건만 예상밖의 물음앞에 일순간 의아하여 서로 마주볼뿐… 그런 좌중을 둘러보며 엄윤철선수는 말하였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사상론이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경기들마다에서도 이 정신력으로 싸워 승리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과 리익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황금만능의 사상을 공기처럼 마시며 사는 외신기자들에게 그 말뜻이 리해될리 만무하였을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였으리라는것이다.

무엇을 위해 경기장을 달리는가, 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은 체육경기의 우승자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각이하다. 아마도 금메달의 수만큼은 각양각색일것이다.

이번 경기대회기간 울려나온 우리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오늘 우리는 일본팀과의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1위를 하였다.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낳은 응당한 결과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녀자축구팀 책임감독 김광민)

《여러분이 보시는것처럼 내 가슴에는 공화국기가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힘을 얻어 좋은 기록을 세웠다.》(김은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저의 기쁨입니다.》(홍은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배려로 평양에는 새로운 훈련장이 일떠섰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잘할수 있었다.》(리정화)

…

력사를 돌이켜보면 고향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땀으로 주로를 적시며 달리였다는 선수도 있었고 세계체육명수가 될 꿈을 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지와 인내력의 극한점들을 돌파하였다는 선수도 있었다.

우리 선수들이 국제체육무대에서 쟁취하는 금메달은 하나의 꿈, 하나의 소원을 안고 빛난다.

《저희들이 평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목놓아 부르며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평양하늘을 한없는 그리움속에 우러르며 원수님께 삼가 올린 이 편지의 구절에는 아시아의 강팀이라고 자처하던 팀들을 차례로 보기 좋게 눌러딛고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고동쳤는가를 알게 하는 힘있는 대답이 있다.

남녘땅 인천, 우리 선수들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한 지명이 아니였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4문의 포로 력량상 대비조차 할수 없는 적의 대병력을 3일동안이나 물리친 월미도해안포병들의 위훈사와 더불어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히 새겨져있는 인천땅,

우리의 체육인들은 경기장에 나선 선수이기 전에 월미도용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 원쑤격멸의 의지를 이어받은 선군조선의 후손들이였다. 예술영화 《월미도》에서 무전수 영옥이가 부르는 《나는 알았네》의 노래가 귀전을 떠난적 없었다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무심히 대할수 없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전화의 나날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자기들을 해방된 조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조국으로 간직하고 영용하게 싸웠다.

오늘 우리 체육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꽃펴나는 이 땅, 자나깨나 그리워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 조국이라는 철리를 흐르는 시간속에 똑똑히 깨달은 애국투사들이다.

《자나깨나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리워 이 밤 잠들수가 없습니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경기들에서 다친 저의 다리치료를 념려하시여 머나먼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받도록 하여주신 따사로운 그 사랑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이 우리들의 투철한 신념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일본팀과의 결승경기에서 결정적인 세번째 득점을 성공시킨 허은별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새긴 심장의 글발이다.

그것은 승리가 확고해진 순간에조차 더 높은 경기성적, 더 통쾌한 타승을 안아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기장을 불사조마냥 내달린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심장마다에 한결같이 고동친 진정이였고 고백이였다.

돈을 위해 달리는 선수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달리는 선수의 경기결과는 같지 않다.

세계앞에 강팀의 권위와 힘을 또다시 남김없이 과시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는 확실한 신비의 힘이 있다. 체육선수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한다는 그 어떤 최고의 도핑도 그앞에서는 무력하다.

그것은 바로 심장의 힘이다. 운명의 하늘, 경애하는 어버이를 받들어 높뛰는 심장의 힘이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우승하였을 때에는 몸가까이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 우리 축구선수들을 항상 생각하시며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검열경기도 지도해주시였다.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지으며 녀자축구선수들이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렸을 때에는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녀자축구선수들이 되라!

김 정 은

2013.8.14》라는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시며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우리 원수님,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고 체육강국건설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여 우리의 주체체육을 눈부신 상승의 궤도우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스승,

그 품을 향해 우리 선수들은 달리고 또 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그이만을 그리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심장의 힘, 활화산같은 정신력의 폭발을 과연 누가, 무슨 힘으로 당해낸단 말인가.

그렇다. 조국을 안고 달리는 선수처럼 강한 체육인은 없다.

오늘 세계체육무대에서는 상업화가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되였다. 선수들이 경기복의 국기를 수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례상사로 벌어지고있다. 고상한 체육정신이 흐려지고 순수 돈을 벌기 위해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에 팔리운 선수들이 자기 조국의 대표로 올림픽에도 참가할수 없게 되는 경우들을 보며 인간의 량심과 지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슴아프게 개탄하고있다.

계절조마냥 이 나라, 저 나라 리익의 가지우에 보금자리를 정하며 부평초마냥 떠다니는 불행한 선수들은 도저히 알수 없고 영원히 지닐수 없는 강한 힘이 우리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사상의 힘, 애국의 정신력이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복마다에 새겨진 람홍색공화국기는 단순한 국적표식이 아니라 값높은 존엄과 운명의 상징, 자랑스러운 승리의 표대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한생이 어린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이 세상에 부럼없는 존엄높고 행복한 운명의 터전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따사로운 사랑과 친근한 정, 빛나는 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최후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떠밀어주시는 무궁한 번영의 활무대이기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창공에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게 할 일념으로 비상한 정력을 다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을 안고 달려 쟁취한 승리를 떨치며 어머니조국에 온넋과 온몸으로 드리는 월계관이 찬연한 빛을 뿌린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승리자들처럼 살며 싸우자.

우리의 멋쟁이체육강자들처럼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 과학전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모든 전구, 모든 초소에서 빛나는 승리를 떨치자.

우리의 체육인들이 창공에 높이 휘날린 람홍색공화국기가 천만의 심장에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선수들이 체육전장에서 보여준 불굴의 투지와 결사의 용맹, 애국의 넋과 헌신성은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최강의 정신력을 활화산마냥 터쳐주는 혁명과 투쟁의 용암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우리의 힘, 선군조선의 최고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사상의 힘이며 사상의 위력이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사상의 힘으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의 애국투사들은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억세게 나아가는 조국의 앞길에 승리의 표대를 더 뚜렷이 세우고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아들딸들이다. 함흥시 성천강구역에서 사는 평범한 로동자의 딸이 있는가 하면 숙천군 열두삼천리벌을 가꾸는 성실한 농장원의 자식도 있다.

이름도, 나이도, 나서자란 고향도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꼭같은 하나의 인생경력이 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당의 손길아래 각지의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남다른 재능을 키웠고 사회주의국가의 혜택속에 체육명수로 자라났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안은 당의 혜택, 조국의 고마움을 자나깨나 뼈와 살에 새기고 청춘을 보답의 의리로, 땀배인 노력으로 빛내여왔다.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다시는 경기장에 나설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도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보답의 한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량심과 의리의 주로에서 순간도 탈선을 몰랐던 강자들이 바로 우리의 미더운 우승자들이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는데 돌아가면 어떤 평가가 차례지는가, 바라는것은 무엇인가고 묻는 외국기자에게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 특별히 바라는것이 없다, 바라는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것이라고 한 우리 선수들의 대답은 비상한 충격으로 세계를 흔들고있다.

심장이 끌리여 꿈에도 안기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받들고 따르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매혹의 세계를 안고 사는 우리 선수들이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이 조선 온넋을 다해 빛내이며 그 길에서 조국이 알고 우리 원수님 아시는 우승자가 될 포부와 리상이 우리의 모든 체육인들의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리상을 지닌 값높은 인생관의 소유자들인가.

애국은 말이 아니라 헌신이고 열정이며 진함없이 바치는 땀방울이다. 조국은 우리가 떠받드는것만큼 빛나고 심장을 바친것만큼 번영한다.

이 땅의 애국자들의 피와 땀으로 무성한 나무아래 그늘을 찾는 길손이 아니라 그 나무에 넋을 묻고 땀을 묻어 아아한 거목으로 가꾸고 한몸 바쳐 그 거목에 알찬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는 성실한 노력가가 되여야 한다.

욕망이나 리상만으로는 조국에 충실할수 없다. 승리는 정신력과 실력을 겸비한 강자에게만 문을 연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우월한 정신과 그 어떤 강적도 단숨에 타승할 높은 실력을 소유하기 위해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뛰고 또 뛰는 우리 체육명수들처럼 조국앞에 언제나 떳떳한 혁명인재, 조국에 영광과 기쁨만을 안아오는 애국실천가로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자.

10월의 하늘가에 우리 국기가 힘차게 나붓긴다.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기의 눈부신 자태와 더불어 창공높이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의 퍼덕임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깊이깊이 파고든다.

남녘땅에 울려퍼지던 《애국가》의 선률이, 뜨거운 눈물속에 람홍색공화국기를 삼가 우러러 거수경례를 드리던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불멸의 애국군상으로 하늘가에 빛나고있다.

그 모습 간직한 우리의 심장은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고동친다.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들자.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방 성 화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정순애 찍음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선교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주별, 월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연혁소개실을 보다 훌륭히 꾸려놓고 참관사업을 계획성있게 조직하여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참관사업을 통하여 이곳 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절감하며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질좋고 맵시있는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충정의 한마음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선수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당의 명칭에 대해 알려주시며

주체35(1946)년 7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이날 회의도중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위대한 수령님께 창립될 당이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부르는가고, 로동당이란 로동자들의 당이란 뜻이 아닌가고 질문을 드리였다.

뜻밖의 질문에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참가자들의 시선은 일시에 위대한 수령님께로 집중되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며 로동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로동자는 물론 농민도 로동을 하며 사무원도 정신로동을 하고있다. 우리가 두 당을 합당하여 창립할 당은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인것만큼 그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하자는것이다.…

그제서야 당의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된 회의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적인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고귀한 명칭에도 우리 당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망라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인민의 충복이 되라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2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였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인민, 당일군과 어머니를 결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는것이 어머니의 성품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티없이 깨끗하고 웅심깊으며 진실하다. 그래서 자식들은 기쁠 때에도 어머니를 찾고 슬플 때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찾는것이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일렁이였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한없이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살아났던것이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라는 말속에는 자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이 헤아릴수 없이 크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긴다고, 일군들이 이러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주체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얼마 앞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모든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우리 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비약의 열풍 세차게 일으킨다

전력증산의 돌격전에 함께 선 심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화력발전소들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치렬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굴지의 기계제작기지 곳곳에서는 공작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시간을 다투며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증산에 절실히 필요한 미루대치차와 소치차, 감속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와 부속품생산실적이 오르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전투전에 벌어진 수송전투

지난 9월초경이였다.

현시기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큰 몫을 맡은 각지 화력발전소들의 설비와 부속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문제를 놓고 기업소의 들끓는 현장마다에서 토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불같은 결의를 다지는 대안로동계급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모두가 전투목표를 종전의 2배로 높이 세우고 결사전에 나섰다.

그런데 철의 기지 강선에서 부어낸 대형소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미 가공한 부속품을 기대에서 내리우는 대상설비생산종합직장 로동자들의 눈빛은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현장으로 한개의 무게가 여러t씩이나 되는 대형소재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련속 들어서는것이였다.

지체없이 소재들을 해당한 설비들에 올려놓고 가동단추를 누른 로동자들이 그 소재보장을 위해 바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은것은 얼마후였다.

단위별로 모임이 진행된 날이 힘든 과제를 우리 작업반에 맡겨달라.》…

위력떨치는 생산돌격대

화력발전소들의 설비와 부속품가공의 많은 몫을 맡은 단위는 치차직장이다. 그런데 대상설비생산과제가 많아져 기능공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난관을 뚫고나갈 비장한 각오를 안은 로동자들의 불같은 토로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서라도 기어이 해내겠다.》, 《제일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해 생산돌격대가 무어졌다. 직장장 김성일동무와 림송현, 김영남동무들이 맨먼저 나섰다. 그들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증산돌격전에 궐기했다.

병원으로 떠미는 일군들의 손을 뿌리치며 기능공인 김일광동무까지 여기에 합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맡은 기대가 멈춰서면 감속기대치차가공이 늦어진다고 생떼를 쓰다싶이 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증산돌격전이 벌어졌다. 생산돌격대에 자원하여 들어온 기능공들은 공작기계들에 만부하를 걸었다. 교대가 따로 없는 치렬한 가공전투속에 피곤이 겹쌓이면 흥겨운 오락회를 한바탕 벌린 후 또다시 전투에 진입하군 하였다.

그 모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격멸의 백병전에 나섰던 화선용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그들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종전같으면 한달이상 걸리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덩지큰 감속기치차가 단 한주일동안에, 미루대치차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 가공되여 나왔다. 련이어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감속기대치차와 소치차가 연방 완성되여 나오고있다.

집단적혁신의 열풍속에

들끓는 현장 어디에나 나붙은 경쟁도표판에는 직장별생산실적을 표시한 붉은 줄들이 키돋움하며 치솟고있다.

대상설비가공과제가 배로 뛰여오르자 대상설비생산종합직장의 능력이 딸리게 되였다. 이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것은 발전설비생산종합직장의 로동자들이였다. 그들은 수력발전설비생산과제로 바쁜 속에서도 예비부속품까지 아낌없이 내놓으며 성의껏 도와나섰다. 말은 계획을 끝내고는 완성가공만 하면 될수 있게 선삭가공을 맡아 도와주어 화력발전소용설비와 부속품가공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하였다.

두 직장의 협동작전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어느 일터에서나 쉬운 일감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어려운 일감을 도맡아나서는가 하면 다음교대, 다음공정을 먼저 생각하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높은 실천적성과로 화답해나선 대안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으로 일터마다에서 날마다 위훈과 혁신이 창조되고 그것은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한 전 호

◇오늘날 전력, 석탄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이다.

서부지구 굴지의 탄전들과 대동력기지들에서 전선시간과도 같은 격동의 한초한초가 흐르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은 온 나라 일군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리며 석탄생산량을 늘이고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그 분초마다에는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맥박치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무거운 과제를 두어깨에 걸머지고 내달리는 보폭,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뚫고나가는 불굴의 공격정신, 이것이 오늘 위대한 당을 받들어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정신적특질이다.

◇한전호!

바로 이 말속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애국자들의 비상한 자각과 과감한 실천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느 탄광, 어느 발전소에 가보아도 좋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격전장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것은 수천척지하막장과 발전기의 동음을 지켜선 미더운 로동계급의 모습만이 아니다.

너도나도 떨쳐나 부강조국을 건설하자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탄전으로, 발전소로 달려오고있는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것은 석탄,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서있다는 자각이다.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총포성울리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던 인민들처럼 한전호라는 말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애국의 분과 초를 이어가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조국의 래일을 심장에 안고 탄전으로, 발전소로 향하고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있어 석탄, 전력생산에서는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애국의 발걸음소리 더 높이 울리자.

당의 전투적호소에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과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이며 기질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창조하는 사람과 향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이다.

애국은 곧 실천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전력문제가 다름아닌 자기 가정과 일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일이라는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 있는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한다.

모두가 전력, 석탄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물러설 권리가 없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보수사업소의 로동계급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보수사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오늘의 하루하루는 보통때의 열백날맞잡이이다. 전력증산의 튼튼한 담보인 예비호기대수를 마련하는데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이 날이 갈수록 그들모두의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고 끊임없는 기록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사업소앞에는 6호보이라중보수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나섰다.

김춘삼, 하용철동무를 비롯한 설비조립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맡겨진 보수과제수행기일을 종전의 절반이상으로 단축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오성록동무를 비롯한 조립2작업반원들이 석탄저장고보수에 달라붙었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높이가 10m이상인 좁은 공간에 발판을 매고 올라갔다. 지지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철판들을 한치한치 들어올리고 련이어 용접의 불꽃을 날렸다. 식사시간도 아까와 현장에서 교대로 식사를 해가며 그야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이어갔다.

각종 변의 보수를 맡은 방명철동무를 비롯한 조립3작업반원들도 시간을 쪼개가며 하나하나의 변을 불이 번쩍 나게 해체하고 교체해나갔다. 홀날리는 용접불꽃마냥 자기들의 심신을 불태우며 4일낮, 4일밤의 전투끝에 직장의 로동자들은 열흘작업량을 절반이상으로 단축하고야말았다. 그들의 이런 결사의 투쟁에 의하여 또 한기의 보이라가 얼마후 증기생산에 들어갈수 있었다.

지난 9월 27일 오후 열설비보수직장앞에는 10호보이라의 천정과열기, 량면과열기들을 긴급히 보수하여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14호보이라 대보수전투가 마감단계에 이른 때였지만 직장장 황태진, 책임기사 우덕수동무들은 직장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립체전을 펼치였다. 로영웅, 방성남, 림창걸, 안창식동무를 비롯한 연공작업반원들이 선행공정인 발판매기작업에 달라붙었다. 주기보수를 하는 보이라여서 아직은 열이 채 식지 않은 상태였다. 수십℃를 넘는 보이라안에서 수십m높이까지 발판을 올려매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삽시에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들고 몸은 확확 달아올랐다. 그러나 오늘의 일분일초가 래일의 전력증산의 밑천을 마련하는 지름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들에게는 물러설 한치의 자리조차 없었다. 불굴의 정신력과 강의한 의지로 그들은 2시간만에 맡겨진 연공과제를 수행하고야말았다.

그뒤를 이어 고명재, 윤용일동무를 비롯한 제관작업반원들과 승창호, 김진명동무를 비롯한 조립작업반원들이 지체없이 과열기의 해당 구간에 대한 교체작업에 달라붙었다. 한시간, 두시간 시간이 흘러 작업교대신호를 보낸지도 여러차례가 지났지만 그들은 좀처럼 내려올줄 몰랐다.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자, 용접면을 제끼고 마주보는 작업반원들의 눈빛은 이렇게 서로서로 고무추동하고 있었다. 끼니도 잊고 쉬임없이 용접의 불꽃을 날리기를 무려 10시간, 과열기보수작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내려온 그들을 부둥켜안고 직장일군들도 로동자들도 마음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결국 직장에서는 해당 일군들이 3일정도 걸릴것으로 타산하였던 과열기보수과제를 단 12시간만에 수행하고 련이어 수압시험까지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야말았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 아니 한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기업소가 당앞에 결의다진 전력증산목표를 돌파하는 날자가 더디여진다는 결사관철의 자각, 바로 이것이 시간을 주름잡는 놀라운 기적을 련일 수놓아가는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위훈창조의 샘줄기인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골도 깊은 산골이였다. 수백리를 달려 동신갱목생산사업소에 도착한 우리는 자그마한 발동선을 타고 한시간반가량 호수를 건는 다음 다시 산골길을 따라 수십리 더 들어가서야 류벌작업소에 이르게 되였다. 굽이굽이 골짜기를 감돌아흐르는 맑고 푸른 물결, 곳곳에 무드기 쌓여있는 통나무들과 기계화의 노래소리 울려퍼지는 일터, 아담하게 들어앉은 사업소의 건물들이며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게 지은 문화주택들은 볼수록 산천의 독특한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우리는 이곳 책임기사 리철호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강기슭의 토장으로 향하였다. 현장에 이르니 류벌작업반원들의 떼몰이가 한창이였다.

《수십리 떨어진 산판들에서 베낀 통나무들이 여기에 도착하면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떼를 무어 맞은켠기슭까지 몰아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지만 한생 떼를 모는 우리 류벌공들의 손락에선 어림없습니다.》

떼짬으로 솟구치는 물결이 발목을 적시는 속에 우리들을 부축하며 류벌작업반 반장 석철남동무가 하는 말이다. 매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앞장에 서서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은 이름난 혁신자이다.

그의 동생인 류벌공 석철룡동무가 구리빛팔뚝에 힘을 줄 때마다 불끈불끈 힘줄들이 솟고 떼목은 물살을 헤치며 어느새 맞은켠기슭을 가까이한다. 떼에서 내린 우리의 눈앞에 물속에서 통나무들을 끌어올리는 류다른 작업모습이 펼쳐졌다.

—부릉, 부르릉, 퉁퉁퉁퉁…

‖ 방문기 ‖

애국의 열정안고 떼목이 흐른다

동신갱목생산사업소 류벌작업소를 찾아서

화물자동차를 들이대기 바쁘게 뜨락또르기관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설비가 기운차게 용을 쓴다. 권양장치의 활차를 거친 쇠바줄에 매달려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움씰움씰 치솟는다. 경사가 45°는 실히 될 비탈면이지만 육중한 통나무들을 거침없이 들어올린다. 이제 저 통나무들까지 실어나르면 오늘과제도 120%로 넘쳐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운전사들인 김혁철, 김광성, 신명철동무들이 산골길을 기세좋게 누비며 통나무를 가득 실은 자동차를 몰아간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용연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매일 수송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는 미더운 이들이다.

호수가에 이르니 곽정형, 라성남, 양충성동무를 비롯하여 떼무이를 맡은 작업반원들이 일손에 불꽃을 날리고있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꺾쇠를 박고 바줄로 다잡아주는 이들의 떼무이작업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근 200m길이의 떼가 완성되였다.

이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우리는 다시금 발동선에 올랐다. 저녁노을이 곱게 비낀 속에 길게 늘어선 떼목들이 유유히 끌려오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산중에 펼쳐진 인공호수를 주름잡으며 줄기차게 흐르고흐르는 떼목을 바라보느라니 우리가 만났던 류벌작업소로동자들의 순박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도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깊고깊은 산중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통나무증산으로 내 조국을 억세게 받들어가고있는 그들, 비록 겉모습은 수수해도 심장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며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되새길수록 바로 이런 참된 애국자,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어 대고조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이 용암마냥 세차게 고패치였다.

이제 저 통나무들이 가닿는 탄전마다에서 수천척지하막장을 떠받드는 동발이 되고 기둥이 되여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열풍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리라.

그렇다. 저 떼목은 단순한 통나무들이 아니라 불타는 충정과 헌신의 구슬땀이 뜨겁게 스며있는 애국심의 결정체이다.

쉬임없이 물갈기를 흩날리며 떼가 흐른다. 이곳 로동계급의 애국의 마음을 담아싣고 줄기차게 떼목이 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순성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동창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승권배동무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한다.》

동창군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비롯하여 군소재지의 기관, 기업소들과 공장들이 새로운 모습을 펼치고있다.

지난 시기의 일본새로는 기대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동창군의 오늘의 전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군의 모습도,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는 이런 전변의 새 모습에는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완강한 공격전을 드세게 벌리고있는 군당책임비서 승권배동무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이 비껴있다.

힘있게 내짚은 첫발자욱

3년전 동창군당책임비서로 사업하게 된 승권배동무는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군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변시키자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군의 면모를 일신시킬 작전을 무르익히였다. 현지에 나가 일군들과 인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느라고 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에로 먼저 옮겨지군 하였다.

(동창혁명사적관과 군소재지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리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부터 힘있게 내밀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자.)

이렇게 결심한 승권배동무는 동창혁명사적관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군당책임비서로서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군당책임일군의 발걸음을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도 적극 따라나섰다.

승권배동무는 혁명사적관에 자주 나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는 사상교양의 거점답게 이곳을 더 잘 꾸리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토의도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재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보장대책을 세웠으며 10여리에 달하는 전기선공사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조명체계를 세워놓고 실내의 여러 호실들에 필요한 변압기와 랭온풍설비들도 여러대나 갖추어놓도록 하였다.

사적관내부를 잘 꾸리기 위해 일군들과 함께 여러 혁명사적관들을 돌아보며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도록 왼심을 썼다.

그가 이 사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였는가 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만도 여러차례나 다녀온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는 혁명사적관내부를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들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사적부문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를 더 잘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도록 한 다음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 필요한 문화용품들도 보장해주었으며 그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도 우선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동창혁명사적관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몇달사이에 훌륭히 꾸려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사상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승권배동무는 혁명사적관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군소재지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개건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군들에게 책임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자면 사상교양거점들부터 먼저 잘 꾸려야 합니다. 물론 한개 대상씩 꾸리는 방법으로 하면 쉬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군들이 남들보다 잠을 좀 적게 자고 뛰고 또 뛰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이런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군당위원회 비서들과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군보안서장을 비롯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은 한가지씩 걸린 문제들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 개건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들이 정중히 모셔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려놓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나가니 그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변혁이 일어났다.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군당위원회가 작전하는데 따라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동창군의 일군들은 승권배동무를 두고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닌 당일군이라고 말하고있다.

승권배동무가 지닌 완강한 공격정신은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잘 꾸리면서 군의 전반적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그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더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나가도록 하면서 군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기 위한 련속적인 공격전을 펼치였다.

군급기관들의 건물과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내밀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먼저 잘 꾸려나가면서 이를 본보기로 하여 군안의 모든 단위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직물공장과 식료공장, 종이공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자면 낡은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하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동요하는 편향도 나타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권배동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부터 현대적으로 잘 꾸려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온 군에 일반화하자고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승권배동무는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령도업적단위들을 하나씩 맡아 개건사업을 완강히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직물공장을 개건할 때에도 승권배동무는 한가지 자재를 써도,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도 가장 좋은것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튕겨주었다.

식료공장, 종이공장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 때에도 어떤 일군들은 본래있던 건물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꾸리기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승권배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려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공장들을 꾸려야 한다고 하면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었다.

승권배동무의 일본새에서 주목되는것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는 무슨 사업을 조직할 때에는 그 단위에서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군에서 도와주어야 할것은 무엇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사업을 설계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그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대동협동농장을 맡고 내려가 농사를 잘 짓도록 이끌어준 사실을 놓고도 그의 이런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그는 농장에서 보유하고있는 설비들과 호미와 낫, 삽과 삼태기 등 중소농기구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그리고 농장에서 해결할수 있는 수량은 얼마인가, 모자라는것은 어떤 종류의 농기계부속품과 중소농기구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여 필요한 조직사업도 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올해에만도 수십종의 뜨락또르부속품을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과 자재들, 삽과 호미 등 중소농기구들을 천수백점이나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자금타산으로부터 자재, 설비의 수송조직,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군 하는 승권배동무를 볼 때면 깐진 물감장사같기도 하고 돌격대의 지휘관같기도 하다는 일군들의 말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승권배동무는 언제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 곳들을 먼저 찾아가 전투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이 나날에 안해와 함께 집에서 기른 집짐승들과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건설자들을 찾아가 고무해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군에 새로 다리를 건설할 때에도 그는 찬물속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지휘를 하였으며 로동자들과 함께 팔을 걷고 타입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그의 깊은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은 새롭게 변모되는 군소재지의 여러 대상들에 슴배여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권배동무의 뒤를 따라 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군소재지의 도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를 번듯하게 꾸리는 사업,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사업, 군에 있는 여러개의 다리를 콩크리트다리로 개조하는 사업 등 군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사업에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난 자기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승권배동무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상교양거점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앞세워나갈 때 군당위원회가 조직한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지금 동창군소재지에는 많은 살림집들이 건설되고 체육관과 편의봉사기지 등이 일떠서면서 나날이 자기의 모습을 더욱 새롭게 하고있다.

날마다 새 모습을 펼치며 비약하고있는 동창군의 오늘의 모습도 좋지만 래일의 모습은 더욱 기대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승권배동무처럼 언제나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며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 단위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시) 승리자들을 포옹한다

김 남 호

거리거리에 흐르는 환영의 물결
승리의 금메달로 민족의 억센 기상을 떨친
내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을 얼싸안으려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이
축하의 연도에 달려나왔다

어디냐 어디
나도 한번 잡아보자
세계신기록을 돌파한 력기강자
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쥔 권투강자
목표마다 명중탄을 쏘아박은 사격 명수…
보배로운 그 손들을 어디 한번 잡아 보자

련전련승 통쾌한 득점으로
승전의 개가를 높이 울린
우리의 자랑스런 녀자축구선수들
그 손을 모두 잡고
내 뜨거운 감사의 정을 얹고싶구나

장하다 승리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땅의 장한 아들딸
딛고선 경기장은 그대로
조국의 명예를 건 결전장
람홍색공화국기아래 눈물을 번쩍이며
오른 시상대는 승리의 고지였다

우리 원수님께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안고 돌아왔기에
그대들을 개선용사들처럼 얼싸안으며
명절처럼 설레이는것 아니냐

한마음 애국으로 불태운 그 심장들을
불같이 끌어안는것이다
이 뜨겁고 열렬한 포옹속에
그대들을 닮은
천만의 승리자들이 또다시 태여나는것이다

탄전엔 석탄산이 하늘을 찌르고
철의 구내엔 더욱 용용한 쇠물의 흐름
건설장엔 비약의 뢰성이 울고
다투어 일떠서는 새 거리의 창문들이
준공의 시각을 마중하며 빛을 뿌린다

그대들의 값높은 삶 거울처럼 비껴안고
애국의 천만대오 폭풍쳐 내닫는다
빛나는 미래가 앞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하는 내 조국
그 무엇도 막지 못할 억센 힘을 품었나니

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아
오늘처럼 언제나
나라의 자랑이 되라 영예가 되라
다함없는 축복을 얹으며
어머니조국은 승리자들을 뜨겁게 포옹한다

(시) 조국은 이런 처녀들을 자랑한다

최 남 순

안아보자
껴안아보자
패승을 안고 온
내 조국의 귀한 딸들아
또 하나의 《축구위성》을 쏘아올린
내 나라의 녀자축구선수들아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화살처럼 경기장을 달리던 그 모습들
환영의 이 순간만은 천천히 지나가다오
누구나 다 그 장한 손 잡아보게

정녕 그 작은 어깨들에
조국을 떠이고 산 장한 처녀들아
오늘은 온 나라가 그대들을
얼싸둥둥 등에 업고
세상에 한껏 자랑하고싶구나
이 처녀들이 바로
우리 원수님 키우신 조선의 장한 딸들이라고

고향은 서로 달라도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꼭같은 마음
11명 합쳐진 하나의 심장속에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안고 달려
금메달묶음을 꽃다발인양 안고 온 그대들

격전장의 진격로를 열듯
육탄이 되여 불덩어리로 달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날린
정녕 그대들은
선군조선의 예쁜이들이여라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승리자의 뜨거운 눈물 흘리며
웃음짓는 우리 처녀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보았어라
어떤것이 녀성의 가장 아름다운 눈물인가를
어떤것이 녀성의 가장 아름다운 웃음인가를
그리고 어떤것이 가장 강한 녀성의 힘인가를

그대들이 흘린 구슬땀
그 진하디진한 땀방울 다 모으면
보석처럼 빛을 뿌리리라
영광의 시상대에서
조용히 흘리던 그 눈물을
저 하늘에 뿌리면 축포가 되여 터져오르리라

앉으나 서나 달리나
오직 어머니조국만을 생각하며
그 순결무구하고 열렬한 사랑을
말로써가 아니라 금메달에 담았으니
가슴에 조국을 안고 살았기에
이 땅의 평범한 처녀들도
세계를 딛고선 강자가 되는것 아니냐

아, 처녀들아
그대들앞에선
조국을 사랑한다고 노래처럼 외우며 산
내 심장에 손을 얹게 되누나
나 또한 조국의 참된 딸로 살아왔는가를
마음속에 묻고물으며
동생과도 같은 그대들을
높이높이 바라보게 되누나

그대들이 흘린 땀방울과 기쁨의 눈물
불물처럼 우리 마음들에 흘러
애국의 피 더 세차게 끓여주나니
그대들은 언제나
땀젖은 단발머리 기발처럼 날리며
우리 마음속 한복판을 달리고달리리라

아, 원수님 안겨주신 믿음에
의리로 대답할줄 안
장하고도 아름다운 처녀들을
조국과 인민은 자랑하노라
그리고 뜨겁게 축복하노라

(시) 장하다! 아들들아 딸들아

원 영 옥

장하다!
이 경사로운 10월에
또 하나의 경사를 불러온
조선의 미더운 체육선수들

승리하고 돌아오라 바래우던
온 나라 마음들에 떠받들려
개선장군마냥 돌아온 그대들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린
사랑하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

기다리는 고향의 마음을 안고
잠 못 드는 조국의 마음을 안고
달리고달린 경기장은
조국의 영예를 지켜온 격전장

온 나라 마음들이 함께 달렸다
후더운 땀방울 뿌리던 그대들과 함께
조국은 잠들지 못했어라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날에 뿌린 그대들의 땀방울
그것은 조국에 바치는
자식들의 더없이 소중하고 깨끗한 넋
가슴마다 빛나는 금메달은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승리의 보고

꽃다발에 묻혀
만사람의 축복속에
떠받들리운 이 순간
잊지 말자
그대들을 어느분이 키우셨는가를
배짱과 담력
어느분이 주시였는가를

아, 목메이노라
낮이나 밤이나
체육전사들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키운
슬기와 투지로
조선의 힘 만방에 떨쳤거니

그 힘은
온갖 원쑤들의 고립압살에도 끄떡없이
폭풍을 길들이며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신념
그 힘은
조국땅 방방곡곡에 울리는
조선속도창조의 우렁찬 노래

조국은 그대들을 믿는다
원수님 안겨주신 믿음을 안고
백전백승 그이의 기상을 안고
경기장마다에서 싸워 이기라
승리는 우리의것!
승리는 조선의것!

한품에 얼싸안는다
조국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 그대들을
인민은 두팔벌려 안아올리노라
위대한 어버이의 참된 아들딸들을
인민은 영원히 자랑하노라

새로운 교편물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3중영예의 붉은기 구성제1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신념의 노래 힘차게 부르며

정평군 독산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혁명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 노래보급책임자들이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혁명적신념을 깊이 새겨주는 노래들을 정상적으로 보급하면서 노래에 담겨진 깊은 뜻도 해설해주도록 하고있다.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념의 노래들을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닌 본분을 다해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당면한 농사일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류 순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리

강서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최근년간 강서세멘트공장의 세멘트생산량은 계속 늘어나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뛰여올랐으며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곳 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몇년전에 비하여 세멘트의 질 또한 현저히 높아졌다.

오늘 강서세멘트공장은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공장으로,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랑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올해 정초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 그 어디서나 세멘트를 요구하고있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공장이 제몫을 당당히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세멘트생산량을 늘여야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현 실태를 놓고볼 때 설비들의 가동상태는 좋지 못하였다.

능력이 큰 송풍기에 교체할 예비부속품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소성로의 가동상태도 시원치 못한데다 당장은 석회석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급선무였다.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대중의 드높은 생산열의가 실지 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자면 일군들이 사색하고 또 사색해야 하였다.

눈보라치는 어느날 깊은 밤, 로천채굴장을 돌아보고 채광직장 직장장 우영수동무를 찾아온 지배인 송일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처럼 쪼물짝하게 광석을 뜯어먹어서는 어림도 없소. 암만 생각해도 이 벼랑턱을 통채로 헐어내는수밖에 없을것 같소. 어떻소, 자신있소?》

직장장은 지배인의 대담한 결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일판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 아침 온 공장의 종업원들이 모두 채굴장에 올라왔다.

붉은 기발들이 나붓기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골짜기를 들었다놓았다.

와—와— 소리치며 질통을 지고 달리는 종업원들, 엄동설한에 웃동을 벗어제끼고 함마질을 걸싸게 해대는 청년들…

실로 혁명적랑만과 열정,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전투장이였다. 문제로 되였던 수천㎥의 박토는 이렇게 단 며칠동안의 격렬한 전투끝에 깨끗이 처리되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눈보라치는 로천채굴장에서 종업원들이 치렬한 격전을 벌릴 때 직장장 황영식동무를 비롯한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열기를 내뿜는 로와 맞서 힘겨운 로보수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로보수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채 식지 않은 로속에 뛰여드는 소성공들도 있었다.

경쟁도표의 화살표들이 날마다 키돋움하며 쑥쑥 올라갔다. 세멘트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은 연방 꼬리를 물고 공장구내를 벗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기운차게 돌아가던 송풍기가 갑자기 멎어섰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멘트생산을 뒤받침해온 공무직장 직장장 김일명동무와 로동자, 기술자들도 어지간히 맥을 놓고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고있을 때 뜻밖에 새로 제작한 송풍기가 도착하였다.

새해벽두부터 공장의 생산실태를 매일이다싶이 알아보던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시의 일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장에 보내주도록 한 송풍기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기사장 김명림동무는 당면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세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을 위해 피타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토론하기를 그 몇번, 중앙의 기술일군들에게서 좋은 경험도 배우고 시료분석을 위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밤길을 걸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드디여 세멘트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기쁜 소식으로 온 공장이 떠들썩할 때 기사장은 기술일군들과 함께 더 높은 기술발전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과 부원 김원호동무를 비롯한 후방일군들은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의 후방사업개선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일군들과 후방보장부문 종업원들은 집짐승우리와 온실을 건설하고 버섯을 키우며 남모르는 땀을 바쳤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한몸이 그대로 조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애국헌신은 그대로 세멘트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올해의 대고조진군에서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날을 따라 전면적으로 로골화되고있다.

년초부터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해온 미국은 우리의 로선과 정책, 제도를 전면부정하면서 반공화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것은 최근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비롯한 온갖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며 우리에 대한 험담을 연방 늘어놓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9월 23일 미국무장관 케리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고위급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하였으며 미국무성 민주주의, 인권, 로동담당 차관보라는자도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앞장서고있는 인간쓰레기들을 계속 부추기려 한다는데 대하여 공언하였다.

그런가하면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도 공식석상에서 우리 핵문제와 《국제법위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헐뜯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안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핵보유결단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전심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치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핵억제력이며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 다름아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과 병진로선을 걸고드는것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삼켜보려는 흉심의 발로라면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우리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내부를 와해시켜 제도전복을 실현해보려는 극악한 적대시책동이다.

국제테로와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세계적인 인권불모지로 악명떨치는 미국이 제코도 못 씻는 주제에 마치도 그 무슨 《인권재판관》이나 된것처럼 행세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책동의 본질은 이번 유엔총회기간에 벌려놓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의하는 회의에 당사자인 우리가 참가하겠다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선데서 더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인권향유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협력도 강화할 용의가 있지만 《인권》문제를 제도전복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리용하려는 시도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끝까지 우리의 국가제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상 조선반도비핵화론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원래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그만두며 평화적으로 공존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조선반도비핵화에 합의하였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가능한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무제한하게 취해나갈 필요만이 제기되고있다.

미국이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으로부터 우리의 로선과 정책, 제도를 걸고들면서 소동을 피울수록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줄기차게 나아가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질것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4일
평 양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

온 나라 인민들의 체육열기를 더해주며 다음주에 여러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된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종목별경기들이 평양시안의 여러곳에서 벌어지게 된다.

6일부터 8일까지 **김일성**경기장에서 청소년녀자축구경기가,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녀자롱구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는 남자배구, 바줄당기기경기가 있게 된다.

씨름, 로라스케트경기는 6일 평양체육관과 로라스케트장에서 각각 벌어지게 된다.

태권도, 윷놀이경기가 6일과 7일 태권도전당과 평양체육관에서, 공안고이고어린이손목잡고달리기, 물고기코꿰고달리기경기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있게 된다.

한편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별 1급경기들이 진행된다.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남자) 4.25:월미도
(녀자) 내고향:청천강
8일(남자) 관모봉:경공업성
평양:압록강
(녀자) 묘향산:압록강
9일(남자) 4.25:기관차
(녀자) 평양:소백수
갈매기:월미도

녀자축구경기는 오전에, 남자축구경기는 오후에 각각 벌어지게 된다.

6일부터 배구, 탁구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배구경기관과 탁구경기관에서, 수구경기는 창광원 수영관에서, 지상호케이 남, 녀경기는 릉라인민체육공원에서, 무선통신 남, 녀경기는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7일부터 레스링 남, 녀경기가 대외경제성체육단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옥류아동병원을 자랑합니다

저에게는 소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있습니다.

집안의 기쁨이고 웃음이던 그 애가 지난 2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며 팔다리도 쓰지 못하여 자리에 눕게 되였을 때 저는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옥류아동병원에 가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딸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이토록 심한 병을 앓는 딸애를 고쳐낼수 있을가 하는 불안감을 가실수 없었습니다.

옥류아동병원에서는 우리 딸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강력한 치료조를 뭇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른 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문헌조사사업도 하고 여러 병원들과의 협의회도 수십차 진행하는 등 딸애의 병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병원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뜨거운 정성으로 저의 딸애는 긴장한 수술과 수십가지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40여일만에는 끝끝내 눈을 뜨고 말도 잘하고 마음껏 뛰놀게까지 되였습니다.

딸애와 함께 입원해있는 동안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한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이토록 훌륭한 아동병원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대성구역 미산2동 63인민반
조 은 순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탄전의 믿음직한 주인들

—령대탄광 2갱 2중대 중대장 성철남동무와 소대장 리명혁, 리명복동무들은 병사시절처럼 단숨에의 정신과 기백으로 깊은 지하막장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대오의 기수들이다.

지난해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계획은 물론 상반년도 석탄생산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끝낸 중대의 앞장에는 언제나 중대장 성철남동무와 소대장 리명혁, 리명복동무들이 서있다.

그들은 수시로 변화되는 막장조건에 맞게 어려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채탄공들을 고무추동하여 채탄막장유지보수를 잘하고 채탄장부하률을 높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불리한 채탄막장을 타고앉은 다른 중대의 몫까지 맡아 석탄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이것으로 제 할바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들은 채탄공들을 이끌고 이웃중대 채탄막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채탄장복구를 제일처럼 도와주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일군들과 채탄공들을 감동시켰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회안탄광 1갱 채탄1중대 채탄공 리금철동무는 제대되여 탄광으로 달려온 때로부터 34년동안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하루와 같이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채탄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기세좋게 탄벽을 허물어내던 리금철동무의 소대는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채탄막장이 붕락될 위험에 처하였던것이다.

그때 리금철동무는 서슴없이 막장보수에 달라붙었다. 자기 한몸의 위험보다 석탄증산만을 먼저 생각하며 위험한 구간을 복구해나가는 그의 뒤를 따라 채탄공들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동발을 드리면서 채탄장을 복구하고 월석탄생산계획을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언제나 소대, 중대의 앞장에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리금철동무는 해마다 많은 동발들을 회수리용하여 나라에 적지 않은 리익을 주었으며 탄차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 나날 그는 수많은 새 세대 탄부들을 탄전의 앞날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내였다.

이런 그를 중대는 물론 갱과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누구나 존경하며 자랑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박 재 근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단 귀국

프란씨스 마우트너—마르크호프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 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녀자축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우리 선수들의 자랑찬 성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에는 끝없는 격정이 파도치고있다.

우리 선수들모두가 당이 안겨준 백두의 담력과 필승의 기상, 우리 식의 주체적인 경기전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누리에 빛내인 이 가슴벅찬 승리와 더불어 태양의 빛발아래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조선녀자축구의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보는 감회도 뜨겁고 더욱 밝은 래일을 내다보는 신심도 드높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녀자축구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현대녀자축구는 19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되였다. 녀자축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보급되였다. 1950년대말, 1960년대초부터 녀자축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녀자축구의 세계적인 보급과 인기로 하여 국제축구련맹에서는 1970년대에 녀자축구를 축구련맹의 정식종목으로 인정하게 되였다. 1991년에 제1차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1996년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 녀자축구가 정식종목으로 되였다.

이러한 세계녀자축구발전력사를 놓고볼 때 우리 나라의 녀자축구가 걸어온 로정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그 갈피갈피마다에서는 되새겨볼수록 가슴벅찬 승리의 화폭들이 빛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2001년 12월 13일부 《로동신문》에는 《온 나라를 기쁘게 하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제목아래 중국 대북에서 진행되고있는 제13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이 련전련승하고있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게재되였다. 며칠후 우리 녀자축구팀이 단연 금메달을 쟁취하고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을 보유한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1986년부터 아시아녀자축구계의 패권을 쥐고있던 중국팀을 준결승경기에서 3:1로 누르고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2:0으로 타승한것을 비롯하여 전기간 53개의 꼴이라는 력사상 보기드문 득점을 기록하였다. 대회의 최우수선수도 득점왕도 다름아닌 조선선수들이였다.

청소한 조선의 녀자축구가 일으킨 승리의 폭풍에 세계가 놀랐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팀》, 《맞설자가 없는 강팀》, 《새 세기의 축구혜성》!

이렇게 이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자랑차게 휘날리고 새 세기 첫해를 빛나게 장식한 우리 녀자축구의 승승장구의 력사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진군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졌다.

다음해에 진행된 《알베나컵》 국제녀자축구경기대회와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련이어 2003년 6월 타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강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련속 두번 아시아선수권을 쟁취함으로써 또다시 세계를 들었다놓았다.

그후 2006년의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 쟁취, 제22차, 제24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와 제4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의 녀자축구경기에서도 우승, 아시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영예의 제1위 쟁취…

지금도 온 세계가 《조선녀자축구지진》으로 세차게 진동하던 그 나날들을 추억하면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2006년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청년녀자축구팀이 단연 우승!

우리의 새 세대 녀자축구선수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첫째가는 우승후보팀이였던 도이췰란드팀을 이긴데 이어 강팀으로 알려진 프랑스, 브라질팀들을 누르고 결승경기에서 5:0이라는 놀라운 점수차이로 중국팀을 이겨 단연 선수권을 쟁취한 이 사변적인 결과를 두고 세상사람들속에서 놀라움과 경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터져나왔다.

《새로운 축구초대국이 출현하였다.》, 《조선은 깜짝 놀랄 일만 한다.》, 《속도와 투지력이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무장된 팀》…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새라새로운 발전면모를 과시하는 우리 녀자축구에 대한 세계의 찬탄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우리 국가녀자축구종합팀이 2007년에 진행된 제5차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기간 녀자축구세계를 지배하던 유럽과 아메리카의 강팀들을 크게 흔들어놓았을 때에도 세계언론은 《강자의 자세로 세계녀자축구의 최고무대에 등장한 조선팀》이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2008년에 우리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까지 뉴질랜드땅에서 미국팀을 타승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세계청소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의 우승의 시상대에 오르자 세계는 또다시 격찬하였다.

—조선팀 세계녀자축구계의 새로운 거인으로 등장!

우리 녀자축구가 이렇듯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필승의 기상을 떨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끊임없이 비약의 나래를 펼쳐올수 있은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던가.

불멸의 글발이 심장을 두드린다.

《장합니다
2003.6.26
김정일》

또다시 아시아의 패권을 틀어잡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기쁨과 행복을 담아 우리 국가녀자축구종합팀 감독, 선수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녀자축구선수들의 경기들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고 축구기술을 더욱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도 밝혀주시였으며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중요국제경기들에서 련전련승하도록 신심을 북돋아주시고도 이렇듯 크나큰 영광을 다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그 사랑,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경기마다에서 선군조선의 체육인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게 한 무비의 힘의 원천이였다.

진정 그 위대한 품속에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강의한 정신력의 승리자들로 자라났고 력사에 류례없는 영웅축구팀도 태여났으며 조선녀자축구가 세차례에 걸쳐 아시아녀자축구계의 패권을 틀어잡는 위훈도 주체체육사에 빛나게 새겨졌다.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는 내 조국이다.

남조선땅에서 진행된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에 겨워 눈굽을 적시는 선수들과 책임감독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전승절에 우승함으로써 승리의 7.27을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고 이들의 위훈을 값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성과를 공고히 하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앞으로도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더욱 힘차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으시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올해에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해주시며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녀자축구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환히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따라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필승의 정신력을 백배로 다지고 우리 식의 경기전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수 있었으며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결단코 첫자리를 차지하고 국제경기무대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릴수 있었다.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아래 선군조선의 금메달은 끝없이 빛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녀자축구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되는 시대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주체체육의 진군길에는 더욱 창창한 앞날만이 펼쳐질것이며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승리의 금메달들은 끝없이 솟구쳐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제3차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 청년녀자축구팀 (2006년 9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

숭고한 애국애족의 결정체—단군릉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손길아래 단군릉이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개건된 때로부터 어언 20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단군릉자리는 명당자리입니다.》

일찌기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학자들에게 단군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2(1993)년초에는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이 발굴되고 거기서 나온 유골에 의해 단군이 5천여년전에 활동한 실재한 인물이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그후 단군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B.C. 30세기초에 세워진 고대국가이며 발전된 청동기문화에 기초하여 형성된 문명국이라는것, 대동강문화를 형성시기로 보나 발전수준으로 보나 세계5대문명의 하나로 당당히 꼽을수 있다는것이 명백히 립증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것은 우리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단군이 평양일대에서 태여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답게 단군릉을 크게 개건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주체82(1993)년 9월 27일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여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의 야산마루의 명당자리에 개건하게 될 단군릉터를 잡아주시고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꾸릴 설계도를 환히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의 무덤답게 동명왕릉보다 더 높고 크게 돌로 계단식으로 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건할 릉의 규모와 형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밝혀주시였으며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단군릉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7월 6일에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단군릉의 최종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빨리 건설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도 다 와보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단군릉을 훌륭히 개건하여 반만년의 민족사를 끝없이 빛내여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훈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실현되게 되였다.

주체83(1994)년 10월 11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관심속에 강동군 대박산기슭에서 단군릉개건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인 10월 29일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천년 력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긍지높이 전할수 있게 하여주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잡아주신 단군릉자리는 명당자리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훌륭하게 개건된 단군릉을 보시였더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우리가 단군릉을 좀더 빨리 완공하였더라면 수령님께 보여드릴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릉은 대를 이어가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력사적국보인것만큼 자그마한 손색도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릉의 보존관리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참으로 단군릉에는 우리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여주시려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그이의 유훈을 정히 받들어 릉을 최단기간에 가장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시여 민족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열화같은 조국애, 민족애가 숭엄히 어리여있다.

단군릉을 찾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자기의 존엄과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자랑스러운 민족사를 긍지높이 되새겨보고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권승안

수역의 부영양화와 그 방지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경보호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수역의 수질상태는 물속의 영양염류함량에 따라서 빈영양, 중영양, 부영양으로 갈라볼수 있다.

부영양화란 강하천과 호수, 바다수역에서 질소, 린과 같은 물속영양물질함량이 높아져서 수질이 빈영양으로부터 부영양으로 변화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영양화현상은 농업생산활동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생겨나는 폐수 등이 강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생기게 된다.

수역에 농업폐수나 생활오수같은것이 흘러들면 그속의 영양염류 등에 의하여 떠살이식물이 대대적으로 번식하여 물이 붉은색이나 푸른색을 띠게 된다.

이런 현상은 해비침조건과 온도조건이 맞춤한 봄과 가을에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물속에 떠살이식물이 대량적으로 번식하면 물속의 용해산소를 많이 소모하기때문에 물고기나 새우, 게, 조개류를 비롯한 수산동물들이 산소부족으로 질식되여 무리로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종 세척제들에 의하여 수역의 부영양화현상이 보다 심해지고있다.

수역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농업폐수를 재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여 강하천에 내보내도록 하며 이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영양염류들을 잘 흡수하는 수생식물들을 수지틀이나 쇠그물틀에 부착시켜 물에 띄워주는 부유섬에 의한 정화방법과 같은 선진정화방법들을 널리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역의 부영양화를 일으킬수 있는 질산염과 같은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은 세척제들을 널리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자연환경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부영양화를 비롯한 강하천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여 강과 바다에 내보내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고있으며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강바닥파기와 물풀걷어내기, 물길정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경순

최고과학기술상을 받은 CNC부하전력관리체계

최근 자강도와 평안남도, 과일군을 비롯한 각지의 여러 도와 시, 군들에서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를 받아들여 전력관리와 교차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을 효과있게 쓰기 위한 대책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부하전력관리체계는 부하측소비전력에 대한 원격집중감시와 원활한 조절, 교차생산조직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전력계통을 안정시키고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전력계통은 수요자들의 의사에 맞게 질좋은 전력을 믿음직하게 공급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전력관리의 견지에서 볼 때 전력계통은 전기가 남는 계통과 모자라는 계통으로 갈라진다.

전기가 남는 계통에서는 최대부하가 걸릴 때 예비발전소를 가동시켜 전압과 주파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하여 계통을 유지할수 있지만 전기가 모자라는 계통에서는 그 유지를 위하여 부하를 제한하게 된다.

이때 부하를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같은 부하를 제한하면서도 적은 전기를 가지고 소비전력에 대한 감시조절과 장악통제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체계이다. 다시말하여 전력계통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당되는 도의 총한도전력량을 실정에 맞게 도안의 모든 시, 군들과 중요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수요단위별로 전력소비한도량을 원격으로 설정하고 해당 단위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선로등급프로그람에 따라 콤퓨터로 3~10kV고압배전선을 조작하여 적은 전기를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면서도 전력계통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대규모분산형콤퓨터자동조종체계이다.

CNC부하전력관리체계는 전력소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력계통상태에 따르는 전력사용한도량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며 한달동안의 720시간별에 따르는 교차생산조직표를 작성할뿐아니라 단위들의 공정상특성에 따르는 부하변동에 적응할수 있는 각종 운영방식도 자동적으로 설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단위들이 같은 전기를 가지고 자기 단위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특성에 맞게 해나갈수 있게 되여있다. 또한 시, 군들과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공급받은 전력사용한도량이 초과되면 콤퓨터에 입력된 3~10kV고압배전선로의 등급프로그람에 따라 당시 등급이 가장 낮은 선로를 자동적으로 개방시키고 사용한도량이 남으면 개방된 선로들중에서 등급이 제일 높은 선로를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인 선로조작에 의한 전력량비를 없애고 공정상요구에 따라 정확히 공급될수 있게 되여있는것을 비롯하여 백수십가지의 기능을 가지고있다.

이 체계를 도입한 결과 자강도에서만도 3만 5천kW이상의 전력예비를 얻어내면서도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연구도입과정에 이 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하전력관리장치, 전력선대화기, 전화선통신장치, 기억기봉사기, 변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국산화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실장 박사 부교수 김덕수

고회석계건축용빠데

탄산가스의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고회석계건축용빠데는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모든 령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조리 흡수하여 서서히 탄산화되면서 경화가 계속되는 재료로서 오늘날 환경보호형재료, 록색형재료로 주목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고회석은 건축용빠데의 기본원료로 된다.

생산공정을 보면 고회석을 소성하여 수화시킨 다음 첨가제를 넣고 4 900공채를 리용했을 때 잔사 10%이하 되도록 분쇄한다.

이것을 일정한 량의 칼시움, 활석, 첨가제와 혼합교반하면 된다.

고회석계건축용빠데의 우월성은 종전의 빠데와 같이 유해공정이 없으며 임의의 장소에서 물과 반죽하여 쓸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2차작업을 하는 경우 연마공정이 필요없으며 생산원가가 거의 절반이나 낮다는것이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고회석계건축용빠데는 여러 단위들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실장 정명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울줄 모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습니다.》

원산시내에 자리잡고있는 동해조선옷점은 크지 않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실력은 시에서 첫손가락에 꼽히우고있다. 지난 시기 강원도를 대표하여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 참가하여 2차례의 특등과 여러차례의 1등을 쟁취한 이들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책임자인 리향옥동무를 만났다.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 훌륭한 조선치마저고리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말하였다.

조선치마저고리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 동해조선옷점에서

《우리에게 남보다 특별한 재간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녀성들을 더욱 아름답게 내세우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두가 지혜를 합치고 이악하게 노력해왔을뿐입니다.》

조용히 하는 말이였지만 가슴을 울리였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옷을 짓는 일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간주하는 이들의 깨끗한 마음이 안겨와서였다. 하기에 이곳 종업원들이 조선옷짓는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열정을 바쳐가던 나날의 이야기들이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책임자부터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았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때에도 녀성들이 조선옷을 만들어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선옷전문생산기지들과 조선옷점을 꾸리도록 하시고 조선옷제작방법도 널리 소개하도록 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자면 무엇보다도 실력을 높여야 하였다. 리향옥동무는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와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들과 교육단위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배우고 참고도서들도 열심히 탐독해나갔다. 그리고 배운것을 창조적으로 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해 종업원들과 집체적토의도 하고 좋은 의견들은 더욱 완성하여 조선옷의 도안형상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조선옷전시회는 그와 종업원들의 안목을 틔워주고 창작적열정을 적극 북돋아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 한번 참가하고나면 대학을 한개씩 나온 심정이였다. 각 도마다 제일 우수한 조선치마저고리들이 출품되는 전시회를 통하여 좋은 경험을 배우게 되였고 경쟁심도 부쩍 높아졌다. 서로 지혜를 합치며 특색있는 도안을 착상한데 기초하여 이들이 만든 옷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조선치마저고리에 휘늘어진 버드나무와 물안개속에 피여난 민들레를 형상한것도 있었고 열두폭치마에 사연깊은 은방울꽃을 형상한것도 있었으며 강성국가의 래일을 그려보며 꽃축포를 아름답게 형상한것도 있었다. 시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그들이 만든 옷들은 늘 전시회참가자들의 시선을 끌군 하였다. 이나날에 동해조선옷점은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고 날마다 손님들로 흥성이게 되였다.

조선치마저고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소중한 꿈을 안고 사는 이들이기에 오늘도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며 조선옷을 발전시키고 거리와 마을들에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도록 하는데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전쟁발발상황을 조성하는 범죄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현 국제정세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나라들속에서는 지금의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제1차 세계대전전야때와 류사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지어 현시기의 동북아시아정세가 제1차 세계대전시기의 유럽정세와 비슷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지 100년이 되는 올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그때의 분위기와 다를바없다는 견해들이 등장하고있는것은 스쳐보낼수 없는 사태이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19세기와 20세기 초엽 제국주의렬강들의 세력관계는 급격히 변화되였다.

제국주의길에 뒤늦게 들어선 미국이나 도이췰란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급속히 발전하여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먼저 발전한 제국주의나라들을 따라서거나 앞서나가게 되였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시장은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점차 막혀지게 되였으며 렬강들사이의 리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모순이 더욱 격화되게 되였다.

영국은 1914년에 세계공업생산분야에서 밀려나 세번째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세계에서 일찌기 류례가 없는 대식민지제국으로서 3350만㎢의 식민지판도를 가지고있었고 프랑스는 네번째 자리로 밀려났지만 1060만㎢의 식민지를 유지하고있었다. 반대로 같은 해 세계공업생산수준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미국은 30만㎢의 식민지가,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 도이췰란드는 290만㎢의 식민지가 있었다. 이러한 세계의 분할은 제국주의자들의 견지로 보아 신흥렬강들의 불만을 자아냈고 식민지를 재분할하려는 탐욕이 불타오르게 하였다.

당시 제국주의시기에 와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 식민지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자들사이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그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진것은 대전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 렬강들간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침략적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두 련합뿔럭이 형성되게 된것도 대전을 일으킨 또 하나의 주요원인이였다.

19세기 70년대 유럽대륙의 중심에 프로씨아왕을 황제로 하고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하는 통일된 도이췰란드제국이 출현한 다음 국제관계의 일반적풍조는 련합뿔럭의 형성에로 기울어졌다.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어떤 동맹에든지 정세추이를 되돌려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해보려는 침략세력의 발악, 사명을 잃은 군사뿔럭의 강화와 새로운 군사동맹형성책동, 제2차 세계대전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한 군국주의잔당들이 자라나 로골화되고있는 재침을 위한 제도마련과 우심해지고있는 군국화, 우경화책동, 유럽과 중동중시에 이어 강행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범람하고 자본가와 근로자들의 계급적모순이 폭발하여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밑에 들고일어난 대중적항거, 사회주의에 대한 력사적거부감과 그 말살을 노린 제국주의세력의 포위환형성, 핵선제공격리론이 국제무대에 뻔질나게 나도는 속에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핵합동군사연습 등은 현 국제정세가 새로운 세계대전을 불러올수 있는 극도의 위험성을 띠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제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를 놓고볼 때 오늘의 현실은 인류에게 국제사회가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여 침략세력들의 전쟁발발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책동을 파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모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대립과 마찰을 격화시키며 내정간섭과 분렬와해책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침략전쟁도발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어느때 가서도 담보할수 없다는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현세기에 주는 교훈이다.

국제무대에서 유엔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세력이 날뛰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련맹이 창설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유엔이 창설되였으나 크고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유엔이 창설된 후 일어난 모든 전쟁들은 그만큼 유엔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커녕 오히려 침략과 전쟁을 가져오는 기구로 전락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날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반동세력을 타파해야 하며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을 조장시킴으로써 정세를 전쟁전야에로 몰아가는 일체 범죄행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세계는 자주화, 다극화의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그러나 낡은 국제질서속에서 지배적, 패권적지위를 계속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세력의 야망을 짓눌러버리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코 승리할수 없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전속도는 그야말로 비약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이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된다고 보고 자주화, 다극화의 방향으로 흐르는 력사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낡은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군비경쟁과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격화시키고있다. 그 집중적표현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조성하고있는 군비경쟁조성과 무력증강책동이다.

전문가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의 군사비지출은 전세계의 60%에 육박하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가 새 세계대전발발의 열풍속에 들어가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2012년기준으로 국방예산을 비교분석한데 의하면 미국이 2012년에 6820억US$를 지출함으로써 전세계 군사비지출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방비지출국으로서 1660억US$를, 로씨야는 3위로서 907억US$를, 일본의 국방비지출은 593억US$, 남조선의 국방비지출은 317억US$를 차지했다.

싸라예보사건은 원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아니였다. 군비증강과 군사력증대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던 도이췰란드와 오—마제국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중국, 로씨야, 미국, 일본 등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주장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유럽중시, 중동중시정책에 의해 지난 세기 후반기와 새 세기에 그 지역들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침공행위, 침략책동들이 일어났는가. 그 정책들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으로 전환된 지금에 와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예측할수 없는 전쟁이 터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동북아시아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되였다고 하는 모든 첨단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의 전시장, 그 활용시험장,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도박장으로 화하고있다. 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서있다.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서 벌리고있는 미제국주의의 낡은 국제질서유지책동과 장성강화되며 새롭게 대두하는 실체들을 말살하기 위한 군비증강과 대결조성책동, 정세긴장격화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인류가 어느 하루도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수 없다.

전쟁을 유발시키고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백해무익한 군사뿔럭을 해체하고 새 군사동맹의 출현을 저지시켜야 한다.

군사뿔럭의 형성은 전쟁도발을 전제로 한다. 미국이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고 날뛰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3각군사동맹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에서 일으키려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이 급선무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말기 미국이 도이췰란드에서 재생될수 있는 군국주의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은것은 로씨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그 영향력이 유럽에 미치는것을 두려워하였기때문이였다.

오늘 미국은 사회주의기치를 펄펄 휘날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이리떼처럼 달려들고있다.

우리 나라가 힘이 약하면 조선반도에서 세계대전의 불길이 또다시 일어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를 군비경쟁의 마당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를 대국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의 희생물로 만들며 유엔을 도용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조이고 3각군사동맹형성으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여 강권과 전횡이 통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획책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인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며 인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업적을 자기 력사에 깊이 기록하게 될것이다.

채 일 출

체육강국으로 비약하는 조선

국제사회계가 찬탄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체육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 국제사회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체육열풍은 김정은령도자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가까운 몇해안에 조선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것이 바로 그이의 결심이고 의지이시다.

그이의 깊은 관심속에 체육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가 마련되고 과학적인 선수후비양성체계가 강화되는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도 가르쳐주시였으며 체육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선수선발과 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할데 대한 문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체육강국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 나라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훈련모습과 경기들도 보아주시고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도 만나시여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드니. 루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조선에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여 나라의 체육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있다고 전하였으며 신문 《나쉬 돔—쏘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체육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네팔신문들인 《저너 써따》와 《전머부미》는 조선은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 체육강국건설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각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 녀축구선수들의 경기도 지도해주시였다, 조선은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있다, 런던올림픽경기대회 력기, 유술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력기종목에서 세계신기록들을 세우는 등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축구는 대중적인 체육종목의 하나이다.

나라의 곳곳에 축구장들이 꾸려져있다.

새로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는 미래의 당당한 국가팀선수들을 키워내고있다.

조선에서는 축구뿐아니라 모든 종목에 걸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조선의 체육발전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실이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블레찐은 우리 나라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체육강국으로 비약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영웅의 빛나는 생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에서 9월 15일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강연회장에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쎄꾸나 까마라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9월 22일은 조선인민이 끝없이 흠모하는 김정숙녀사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65돐이 되는 날이다.

녀사의 생은 비록 짧았으나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시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녀사께서는 1935년 9월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녀사께서는 수많은 격전장들마다에서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용감성,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명성떨치시였다.

녀사께서는 조국해방후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인민들을 김일성주석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새 조국건설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시였다.

특히 김일성주석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주석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수령결사옹위의 화신으로 영생하신다.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 9월 24일부가 《빛나는 생애》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머리글에 9월 22일은 조선인민이 흠모하는 김정숙녀사께서 서거하신 날이다, 녀사의 생애는 너무도 짧았으나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고 썼다.

신문은 《불멸의 자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 간고한 항일의 나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용감성,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명성을 떨치신데 대하여서와 그이를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무들에 글발들을 새긴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업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농촌과 어촌 등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사업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나라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시였다.

1948년 9월 9일에 녀사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게 되였다.

신문은 《영원한 화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머님께서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시고 그이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수령결사옹위의 화신으로 영생하신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나이제리아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빛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1935년 9월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녀사께서는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손에 총을 잡고 싸우시였다.

녀성의 몸으로 산에서 풍찬로숙하면서 싸운다는것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녀사께서는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산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였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나무들에 새긴 글발들에는 녀사를 칭송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특히 항일대전의 나날뿐아니라 해방후에도 변함없이 김일성주석을 결사옹위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 바치신 김정숙녀사의 충정은 오늘도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다.

녀사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영국조선친선협회가 9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어머니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이를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김정숙녀사는 일제의 억압에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무장투쟁과 새 민주조선건설에 특출한 공적을 쌓으신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주체적인 조선녀성운동의 선각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새 조선의 혁명무력건설에도 크게 기여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삶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빈궁이 없는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 발전도상나라들에서 ◎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빈궁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의 빈궁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의 후과와 불공정한 현 국제경제질서 등에 근원을 두고있다.

빈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초보적인 의료봉사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다.

유엔개발계획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빈궁자수가 약 22억명에 달하고있다. 앞서 4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서 16억명이 극심한 빈궁에 시달리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은 빈궁청산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는 빈궁청산문제는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제적인 기본문제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개선할것이라고 밝혔다.

캄보쟈수상 훈 센은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궁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특히 경제발전과 빈궁청산의 기본장애물인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베네수엘라 부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국가공동체성원국들이 빈궁과 기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잠재력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교육, 보건, 식량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지역의 빈궁청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적도기네의 말라보에서 제23차 아프리카동맹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및 식량안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륙의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동맹성원국들이 농업에 대한 투자와 식량생산을 늘여 빈궁과 영양실조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였다.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는 기아와 빈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국가공동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2024년까지 지역에서 기아와 빈궁을 완전히 없앨데 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빈궁을 청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지난 20여년동안에 빈궁청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극빈자수가 에티오피아에서는 49%, 가나와 부르끼나파쏘에서는 각각 44%, 37% 줄어들었다.

캄보쟈에서 빈궁자수가 2004년의 10명중 5명으로부터 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말현재 극빈자비률이 1999년의 16%로부터 5.5%로 감소되였다.

볼리비아에서 지난 8년동안 전국적으로 약 200만명의 주민들이 극심한 빈궁에서 벗어났으며 2025년까지 극빈자를 완전히 없앨것을 계획하고있다.

필리핀정부는 일자리를 더 많이 조성하여 2016년까지 빈궁률을 현재의 25.2%로부터 18%로 낮출것을 예견하고있다.

빈궁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교원의 날을 맞으며

오늘은 세계교원의 날이다.

1994년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사업에서 교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교육사업과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0월 5일을 세계교원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였다.

올해 세계교원의 날의 주제는 《미래에 투자하라, 교원들에게 투자하라!》이다.

그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 사회적진보와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생활에서 노는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 자주적발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저들의 독점물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그것을 무기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을 면할수 없고 튼튼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마련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도 지켜낼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여부에 따라 강자와 약자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면 그 나라 국민총생산액이 훨씬 높아진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비성투자가 아니다. 막대한 부를 창조하는 생산성투자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흥발전과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교육사업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교육자의 모습에 후대들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비낀다고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강국건설을 지향한다면 마땅히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교원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자주적인 사회건설에 나선 발전도상나라들이 교육사업을 중요한 정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고있다. 교원선발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들의 실무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당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훌륭하게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교원들은 직업적혁명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고 살고있다.

국가의 관심속에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적극 내세우며 우대하고있다. 교원들은 앞날의 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자각을 안고 인재육성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위성제작 및 발사국, 세계에 몇 안되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여기에는 부강조국건설의 밑뿌리가 되여 인재육성사업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온 교육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교육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보다 강화될것이다.

김 국 철

유엔개혁 호소

에리트레아외무상이 9월 30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에 대한 국제적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렬강들의 완고한 반대로 하여 유엔을 개혁하는 사업이 더이상 추진되지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세계평화와 자주, 평등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이 유엔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군병력손실 증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쟁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미군의 병력손실이 늘어나고있다.

9월 30일 미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전쟁개시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미군사망자수가 2 208명에 이르렀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부상자수는 1만 9 996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핵권리를 수호할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9월 25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수호하려는 립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은 우라니움농축을 비롯하여 핵활동을 계속해나갈것이며 자기의 평화적핵권리를 고수하는데서 절대로 탕개를 늦추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외교적방법만이 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이란고위성직자 카젬 쎄디키가 9월 26일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가 평화적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관련회담에 참가하는 이란대표들은 렬강들의 부당한 요구들을 물리치고 핵권리를 끝까지 고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정부는 나라의 핵활동이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담을 계속 진행할것이지만 지배세력들이 인정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탄자니아의 국립공원

ㄱ-41155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